

“살아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 (현)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원장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 방송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한국PR협회 회장
- Harvard Yenching 학회 회장



언론 분야 옹지를 품은 제자들을 위해 미디어관 열람실을 기부한 언론학자요, 매년 언론과 법 분야에서 탁월한 저술과 학술논문,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쾌척했던 언론법학회 창립 회장. 은퇴 후에도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 원장에 취임하여 국·내외 교육프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하며 지내고 있는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 ● 위원회에서는 1993년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으로 인연을 맺으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요.

대학에서 언론윤리법규 강좌를 맡아 가르치던 중,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학을 벗어나 언론분쟁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으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지만,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게 된 경우에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위원회 위원에 위촉되면서 언론중재위원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실용적인 연구자료와 경험을 얻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전공 교수이면서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미디어 관련 학과의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지만 살펴봐도 매스미디어의 중심이동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 학과의 명칭은 신문학과-신문방송학과-언론학과-언론정보학과-커뮤니케이션학부-미디어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광고홍보영상학과-영상학과-영상문화학부-디지털콘텐츠학부 등으로 다양하게 변해 왔습니다. 이는 미디어 관련 기술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미디어가 생성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피동적 소비자로 머물지 말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보에 대처하는 미디어 주권의 주인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안철수 신드롬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보사회구조가 민주주의(Democracy)에서 에드호크러시(Adhocracy¹⁾)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Adhocracy를 풀어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그들의 권한을 공적 매개체나 대표자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현안에 대응하여 SNS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가 정책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디지털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수용자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빈자 편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해야겠지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예방하는 등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Adhocracy :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의 저서 <미래충격>에 나오는 용어로, 유기적, 기능적, 임시적 조직을 말한다. 1988년 원우현 저 '현대미디어이론'에서는 앨빈토플러의 Adhocracy 개념이 소개되었고, 그 이론을 전파했다.

●● 정년퇴임 이후 교수님은 물론 사모님(연세대 이방숙 명예교수)도 봉직했던 대학교에 기부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 재능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신데, 나눔활동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남몰래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귀한 법입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 내가 살아온 것이 부모님을 포함한 세상의 덕분이라는 것을 한 순간 벽차게 느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같아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사람이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지 시간과 마음과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과 마음과 돈을 스스로와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생존하기 위해 애썼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타인에게로 향하게 되더군요.

몇 해 전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어렵게 모은 돈 천 만원을 고국에 있는 작은 교회를 짓는 데 헌신한 것을 한글 경연대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후 그 네팔 산골교회를 위해서 미자립 상태인 철우한빛교회를 통하여 전적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원 탈북자들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로지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사랑의 나눔이 그 기반과 뿌리에 미쳐 열매와 과실을 매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구체적인 예로 매년 언론법 분야의 우수 저술과 판례를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봉직했던 대학교에 조그마한 열람실을 위해 일부 기부하여 매년 재학생들이 청춘의 꿈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네 팔 오지 교회에 기반시설을 마련해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2년 사회공헌단을 창단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의 나눔활동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공헌단의 창단은 권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의 사회적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엿보인 대목입니다. 홍보나 걸치레로 나눔의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는 자못 진지한 면이 있더군요.

그 예로 얼마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살에 관한 전통철학적 접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의 역기능(Dysfunction)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다룬 점에서 돋보이더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31년간 R&D를 통해 축적해 온 특별한 지식과 전문적인 정보를 우리 사회로 전파하는 이러한 활동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최



제자들을 위해 기부한 고려대 미디어학부 열람실 앞에서

근, 그 간의 노하우를 교육으로 집약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언론인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언론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나눔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 현재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재임하시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지요.

제가 제14대 회장을 지낸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5개의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의 유일한 협의체로 37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가 그동안의 연구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사회 현장에 투입해 학문의 실용성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2012년 1월 글로벌정책사회과학아카데미를 설립하였고, 제가 초대원장을 맡게 되었지요.

본 아카데미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인자라, 수강대상국에서 국가권력 측면에서나 학문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민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브루나이 중견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행정, 환경,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꾸렸고,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현장 학습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

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교육이나 행정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2012년 2월 브루나이 중견 고위공무원들과 함께

●●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며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데,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주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엔 오히려 마음과 몸을 활짝 펴고 살아야 합니다. 움켜쥐었던 두 손을 활짝 펴서 주변에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삶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십시오.

로마의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대로,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같이 행동합니다. 빠른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 흥얼대면서 지내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예컨대 제가 은퇴 직후부터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원서를 읽으며 하늘의 세계를 시원하게 꿈꾸며 소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